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

2016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실천 사례집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역음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 - 2016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실천 사례집”은 2016년 한 해 동안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 활동하신 학교 선생님들의 소회를 모은 책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지, 학교에서의 세계시민교육을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세계시민교육을 하면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나는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중이라면 이 책은 자신만의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2012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제안한 ‘글로벌교육우선구상(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s: GEFI)’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교육 목표로 부상하였습니다. 2015년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세부 목표에 포함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유엔 회원국이 함께 노력하여 달성해야 하는 글로벌 교육 목표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지니는 시의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역설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글로벌 의제화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이 유엔 및 유네스코에서 글로벌 의제 설정을 주도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사업은 한국의 그와 같은 기여와 성과를 국내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 기획된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은 세계시민교육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는 학교 수업을 비롯해 동아리 편성, 교사 연수, 교수 학습자료 개발 등과 같은 측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으로 다가갈수록 현실적인 불안과 고민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은 특히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을 지적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연 세계시민교육이 진정성과 생명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세계시민교육의 성과와 고민을 두루 다룸으로써 현실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교 세계시민교육의 목표와 기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 책의 저자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을 나눔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동력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에 활동한 1기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의 실천 사례는 “세계시민교육, 학교와 만나다”라는 제목의 책으로 만들어져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그 연속선상에서 2016년 한 해 동안 2기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들이 활동한 성과와 그 경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자기 성찰적 질문과 그에 대한 선생님들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2.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한 활동은?
3. 선도교사 활동을 하면서 아쉽고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의 변화는?
4. 세계시민교육을 알게 된 나로 인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5.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6.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진 선생님들께 드리는 조언은?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독자들은 이러한 질문과 그에 대한 선생님들의 답변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이미 세계시민교육과 인연을 맺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이 질문들이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다시금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아직은 세계시민교육을 낯설어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책이 하나의 불씨가 되어 세계시민교육이 사람들에게 더 가까워지고 학교와 사회에 널리 퍼져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16년 12월 9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원장 정우탁





004 여는 글

016 더불어 사는 시민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 이진희(화정초등학교)

032 세계시민의 능력과 자질을 키워주기

- 고아리(명인초등학교)

046 실천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배움

- 박성기(하남고등학교)

056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위한 씨뿌리기

- 서지혜(평원초등학교)

068 작지만 멋진 세계시민을 위한 교육

- 최제오(동산초등학교)

076 작은 몸짓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기를 바라며

- 박지윤(송원초등학교)

086 동아리 활동과 결합한 세계시민교육

- 남윤정(강서고등학교)



098 충만한 공동의 미래 준비하기

- 박지현(한솔중학교)

108 고맙고 행복한 세계시민교육 바이러스

- 류진원(간재울중학교)

118 교실에서의 세계시민교육

- 정명자(다운중학교)

128 어울림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 홍윤빈(정원여자중학교)

- 정용민(건국대학교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 정혜선(충무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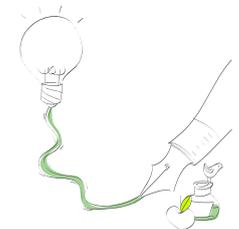
- 박재준(공연초등학교)

144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세계시민교육

- 정영남(김천여자고등학교)

154 수원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는 법

- 이원향(동신초등학교)





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이 책을 펴낸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은 유네스코 회원국과 함께 국제이해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을 증진·발전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본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협정으로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www.unescoapceiu.org



이 책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는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인터뷰 내용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이 정리·편집하여 출판한 자료입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는 세계시민교육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유네스코 아태교육원과 함께 2015년부터 실시해 온 정책이며, 중앙 및 시·도선도교사로 구성된 선생님들은 학교와 지역에서 세계시민교육의 연구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시민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이진희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부산, 2016)로서 부산 화정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미래를 만드는 일이고, 수업의 내용은 미래의 질을 결정합니다.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이 훌륭한 답이 될 거라 말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보며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의 메마른 일상 뒤에서 상호 연대, 인류애, 평화, 배려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십니다. 선생님은 '낮선 세상, 그 발견의 기쁨'이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을 알아보고 세계시민으로서 새롭게 인식하는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발견과 공존을 실천합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며, 지구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이 교과 지식으로는 볼 수 없는 더 큰 세계를 보게 하고 아이들의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해줄 거라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진짜 세계시민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나에게 세계시민이란?

세계시민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

2016년 2월, 저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들었습니다. 연수를 듣기 전까지 제가 생각한 세계시민교육은 국제교류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시절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여러 문화교류 활동을 추진했던 일과 팀을 꾸려 해외봉사를 했던 경험들이 세계시민의식에 대한 싹을 틔우게 했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없었기에 저의 시각은 한정된 차원에 머물러 있었어요.

교사가 되고 나서 세계시민교육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이 서로 수업교류를 하고 여러 문화교류 활동도 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저도 한복을 소개하거나, 부채에 태극 문양을 그리거나, 또는 국악, 태권도 시범 등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특기 하나쯤은 교사로서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국제교류는 세계시민교육의 영역 가운데 하나일 뿐 전부는 아니었어요. 세계시민교육은 더 크고 더 깊고 더 본질적인 교육입니다. 세계시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겠지요. 제가 생각하는 세계시민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어떤 활동이든 이 생각과 맞닿아 있다면 훌륭한 세계시민교육의 첫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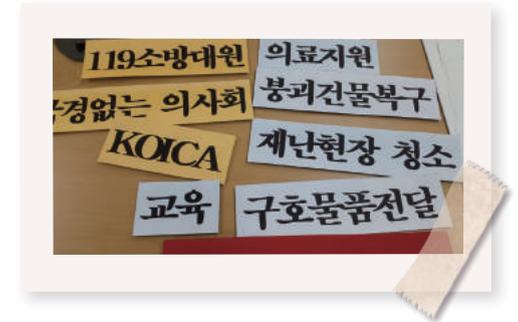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

지난해인 2015년에 4살짜리 시리아 난민 여자아이가 파도에 떠밀려 터키 해안에서 숨져 있던 사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수업시간에 난민 문제를 설명하고 그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저희 반 남학생 한 명이 큰소리로 웃는 겁니다. 옆드려 있는 모습이 웃겨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하더군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인데 어떻게 웃음이 나올까. 수업이 끝나고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려면 무엇보다 세계시민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해

요. 세계시민은 나만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를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SNS로 소통하며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아이들의 메마른 일상 뒤에서는 이렇게 상호 연대, 공감, 인류애와 같은 소중한 가치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10년 뒤 우리 반 아이가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려면 무엇을 해주어야 할까요. 저는 그 답이 세계시민성을 갖춘 세계시민,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세계시민교육에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세계화, 다원화, 개인화되어가는 시대 환경 속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주체가 바로 나라는 인식과 지구촌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세계시민의식은 분명 아이들에게 교과 지식으로는 보여줄 수 없는 더 큰 세계를 보여줄 거예요. 이 큰 세계는 아이들의 현재를 보다 충실하게 해줄 거고요. 예를 들어, 물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를 단순히 절약해야 하니까, 혹은 환경이 파괴되니까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낭비하는 물로 인해 지구 반대편 누군가가 물 부족에 시달려 목숨을 잃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물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는 큰 그림을 알도록 하고, 너와 나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 지구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면 아이들이 더욱 큰 책임감과 실천의지를 북돋울 거예요.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세계시민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 지금 그 시야를 넓혀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의식은 여럿이 어울리며 소통하는 공동체에서 발견되고 발전될 수 있어요. 지구촌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국제적 이슈를 탐구하고 소통하며 평화, 인류애, 배려와 같은 가치들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는 진짜 세계시민으로 자라기를 기대해봅니다.



2

세계시민 선도교사로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어 수행했던 활동은?

‘낮선 세상, 그 발견의 기쁨’

2016년인 올해 가장 중점적으로 수행한 활동은 도덕 교과와 연계하여 세계시민교육을 풀어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초등 도덕 교과에서 다루는 18가지 주요 가치 덕목을 지도하는 데 세계시민요소는 좋은 학습 자료가 되었어요. 그 중 평화 요소는 고학년 학생들에게 강조해야 할 핵심 가치이기도 해요. ‘평화’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낮선 세상, 그 발견의 기쁨’이라는 프로젝트를 1년간 진행했어요.

낮선 세상, 그 발견의 기쁨은 말 그대로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다양하고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세계시민으로서 새롭게 인식하는 나의 발견, 우리의 발견이기도 했습니다. 나와 너의 발견으로 우리의 공존을 고민하는 과정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이 ‘기쁨의 발견’이기를 바랐어요. 세계시민 요소를 보면 전쟁,

기아, 테러, 차별, 폭력과 같은 비참한 현실과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좋으나 문제의 심각성만 적나라하게 노출하면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알고 공감했지만 실천은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동떨어진 이야기로 들릴 수 있고요.

'나'에서 시작하는 세계시민교육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그들의 생활 장면과 연결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라와 나라 사이 평화의 실천을 위해 무력진압이나 폭력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지금 당장 친구와의 관계에서 먼저 평화를 실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연결해 주어야 해요. 교실에서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이 작은 실천이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한 방법 차원을 넘어 나라 간, 종교 간, 인종 간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로운 인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임을 알게 해야 합니다. 크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서 실천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시작이라는 것을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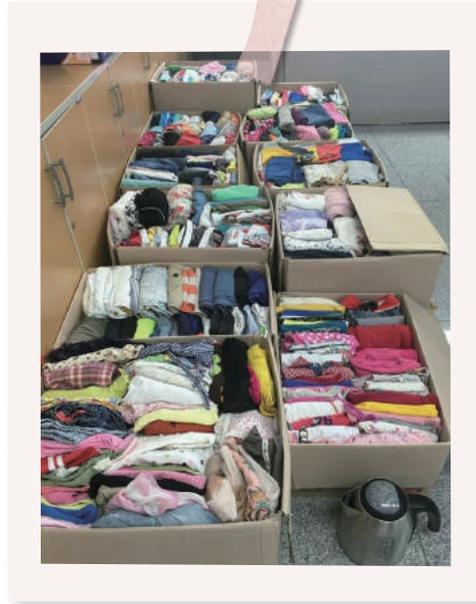
드시 짚어주어야 해요.

지하철역 벽면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더군요. 한 사람이 곧 세계다. / 그 한 사람이 있어 그 한 세계가 또한 있다. / 세계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고 / 마침내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난다. /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평화로우면 그 세계 또한 평화롭다. / 세상의 평화를 원한다면 / 당신이 먼저 평화가 되어야 하는 것은 /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인 까닭이다. 맞아요. 세계시민교육은 바로 '나'에서 시작해요.

수업을 진행할 때는 문제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두려고 했어요. 인권 침해 문제와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거나,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의 사례를 조사하여 본받을 점을 찾게 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 등에 많은 비중을 두었어요. 아이들의 편견 없는 마음을 섬세하게 다루려고 노력했어요.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지만 정말 아름답고 정의로운 사례도 많잖아요.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이 노출시켜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게 해준 토의·토론

수업 방식에도 변화를 주었어요. 지구촌 시대의 여러 이슈에 대해 토의·토론 방법을 적극 실천하였어요. 토의·토론은 다양한 생각과 가치,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며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깊게 생각하는 힘을 길러줘요. 아이들은 자료를 찾아 자



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지혜를 발휘하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습니다. 결국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게 돼요. 이는 지구촌 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과 맞닿은 부분이 많아요. 학생들로 하여금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존중, 배려, 책임,

협동과 같은 자질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과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게 하는 토의·토론 학습은 세계시민교육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토의·토론은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고 공공생활에서 사려 깊은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수업 방식이에요. 토의·토론으로 풀어가는 세계시민교육은 분명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세계시민교육을 할 선생님들께 드리는 팁은?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연결하기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과정에 녹여내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재구성이 필요해요. 예를 들면, 도덕 교과에 평화와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과 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는 차시가 있는데, 슈바이처가 기차 삼등칸에 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슈바이처라는 인물과 기차의 삼등칸은 아이들에게 와 닿지 않을 뿐더러, 위인을 제시함으로써 평화의 실천은 훌륭한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어요.

2015년 네팔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일어나 8천여 명이 사망하고 16만 명이 부상을 입어 수많은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경없는의사회, 월드비전, 한국국제협력단(KOICA), 119 소방대원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협력 단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곳으로 달려가 구호활동을 했어요. 전쟁이나 테러, 자연재해 등으로 처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이들이 몸소 어떤

실천을 하는지 와 닿을 수 있게 생생한 영상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구든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작은 실천 하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시민교육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글로벌 이슈를 이해(Learn)하고 정서적 공감(Empathy)을 했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참여(Action)하도록 이끄는 과정이 필요해요. 행동으로 실천하도록 연결해주는 거죠. 네팔 지진 수업의 경우도 완성된 학습이 되려면 실제 도움을 주는 참여가 필요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교감 선생님의 적극적인 기획과 추진으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치트완의 학생들에게 구호물품 보내기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이 의류라는 현지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했어요. 가정에서 잘 입지 않는 옷을 모은 후 깨끗이 포장하여 7월 초에 현지에 전달하였고, 페이스북으로 현지에 전달된 상황을 학생들에게 확인시켰어요. 아이들은 뿌듯해했고 정말 기뻐했어요. 살아있는 수업이 된 거죠.

체험 중심 수업의 장점

교실을 벗어난 체험 중심 수업도 좋아요. 부산에서는 ‘세계인과 함께하는 어울마당(Global Gathering)’이라는 지역행사가 매해 열려요. 아이들이 직접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다보니 흥미로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밖에 기후변화체험관, 양산



자원회수시설, 화명생태공원, 야생화체험단지 등 생태적 민감성을 바탕으로 한 체험 중심 수업도 아이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생동감을 전하기 위해 지역사회 프로그램 및 외부 특강을 적극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월드비전 세계시민교실도 아이들에게 유익했고,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하는 차세대 ODA 리더 동아리 개발교육 4차시 수업도 국제협력 관련 외부 전문 강사들이 교실에서 세계화와 상호 연결성, 세계시민으로서의 연대감, 지구촌 빈곤과 해결 등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유익했어요. 이 외에도 지구촌 사랑 나눔 캠페인, 세이브더칠드런 모자 뜨기, 희망티셔츠, 글로벌 친구 맺기 등 많은 활동이 있어요.

또한 각 달마다 여러 기념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3월에는 세계 숲의 날(3. 21), 세계 물의 날(3. 22), 매년 3월 셋째 주 토요일의 지구촌 전등 끄기



(Earth Hour)가 있어요. 4월에는 종이 안 쓰는 날(4. 4), 지구의 날(4. 22)이 있고, 5월에는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5. 22), 세계 바다의 날(5. 26)이 있어요. 6월에는 세계 환경의 날(6. 5),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6. 17)이 있는 등 여러 기념일이 있어요. 월별 계기 교육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풀어가도 재미있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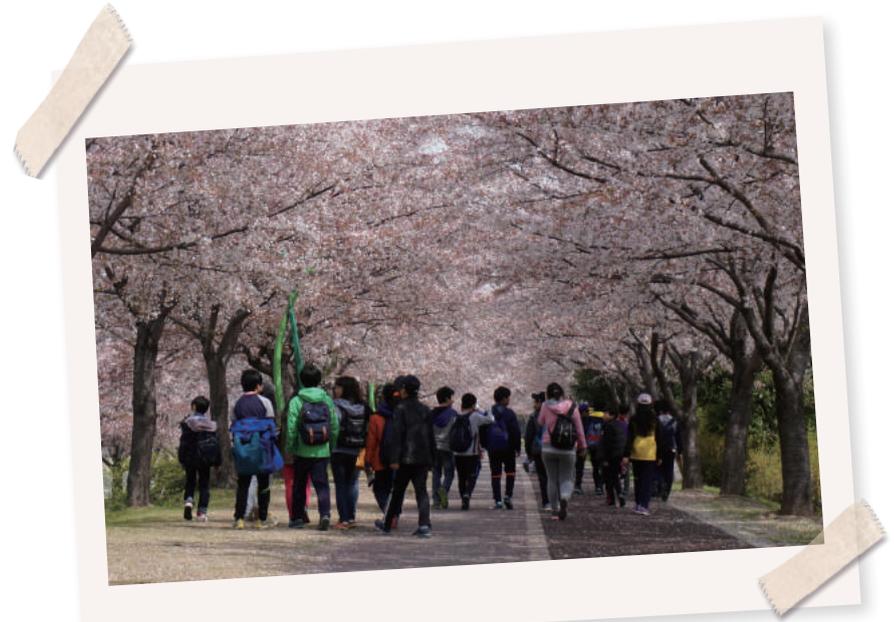
세계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시민성 혹은 가치 덕목 개념을 학습할 때에는 유추를 활용해도 좋아요. 유추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과 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유사한 측면을 찾아 일반적인 원리나 공통점을 추출하는 거잖아요. 폭력적인 사람과 바람 빠진 자전거의 공통점, 평화로운 사람과 맛있는 피자의 공통점, 다문화사회와 아름다운 정원의 공통점, 잔인한 테러리스트와 침몰하는 배의 공통점, 관용적인 사람과 잘 익은 토마토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등으로 유추를 활용하면 추상적인 개념들을 재미나게 익힐 수 있고 학생들의 창의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자극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세계시민입니까’라는 물음

올해에는 ‘당신은 세계시민입니까’라는 제목으로 자체 워크북을 만들어 수업을 했어요. ‘당신은 세계시민입니까’라고 아이들에게 묻기 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물어볼 일입니다. 세계시민으로서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테러나 가난 등으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 내가 할 행동은 무엇인지,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치지는 않았는지, 세계시민으

로서 소통과 존중, 배려 같은 덕목을 진정 내 삶과 교실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해요. 학생들에게 역할 모델로서 교사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공존하며 개인화되어가는 오늘날,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미래 핵심 역량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세계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할 때 더욱 향상되고 내면화될 거예요.

저는 ‘당신은 세계시민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아이들이 ‘네, 저는 세계시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도록 부지런히 노력할 겁니다. 저도 세계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이 있으니까요. 수업은 미래를 만드는 일. 그 수업의 내용이 무엇이나에 따라 미래의 질이 달라지겠죠. 세계시민교육은 훌륭한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의 능력과 자질을 키워주기

고이라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현재 명인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수도권 초등학생들의 인종 편견에 관한 연구(2005)’, ‘CCAP를 이용한 반편견 교육이 어린이들의 인종 편견에 미치는 영향(2008)’, ‘Stephen Lawrence 사례로 본 인종 증오 범죄와 그에 대한 영국의 사회적·교육적 대응(2010)’, ‘중등지리 교육과정에 반영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2015)’, ‘글로벌 시민 교육 교원 연수의 효과 분석(2015)’, ‘지리 교과에서 세계시민교육-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2015)’와 같은 논문을 발표했고, ‘우리는 세계 시민(2013)’, ‘평화를 알아야 평화롭다(2013)’와 같은 책을 집필하면서 현장에서 꾸준히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를 환대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서로는 나와 나를 둘러싼 타자이고, 타자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환경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이를 위해, ‘이웃에게 좀 더 친절해지기’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기’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그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시민교육: 생명의 동아줄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생명의 동아줄입니다. 해님 달님 이야기는 모두가 알고 있는 동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던 호랑이가 떡장수 어머니를 잡아먹고는 집에 남아 있던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그때 뒷마당의 큰 나무 위로 달아난 남매는 하늘을 보며 이렇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에게 상한 동아줄 말고 생명의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결국 남매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 해님과 달님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생명의 동아줄, 바로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인류가 힘을 모을 수 있게 해주는 세계시민교육

우리 인류는 언뜻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발전을 이룬 듯이 보이지만, 사실 수많은 전 지구적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

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온난화 하면 북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올라가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가 잠긴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온도가 1도만 올라도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다 녹아 5천만 명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지구촌 생물종의 10퍼센트가 멸종합니다. 2도가 오르면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이 극심해지고 북극곰 등 생물종의 15~40퍼센트가 멸종합니다. 3도가 오르면 해수 대순환이 멈추고 수역에서 수십억 명이 환경 난민이 되며, 생물종의 20~50퍼센트가 멸종합니다. 4도가 오르면 툰드라에 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가스가 빠져 나와 지구 온난화가 더욱 심해지며, 6도가 올라가면 지구촌 생물종의 95퍼센트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류는 무사할 수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신자유주의 경제로 인한 양극화 심화, 여러 불평등, 세계의 각종 분쟁 등이 눈에 띄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겨운 지구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온 인류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때 인류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입니다.

차별에 대해 고민하기

이 세계시민교육의 첫걸음은 바로 우리 옆을 소중히 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차별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차별을 당하면 누구인들 기분이 좋을까요? 차별받고 차별하는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치기 어렵습니다. 여러

종류의 차별 중 제가 크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인종차별입니다. 수백 명의 초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피부색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초등학생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포함된 동북아인 등 어느 인종보다도 백인이 가장 친절하고 부지런하며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흑인이나 동남아인들은 게으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백인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고 가장 친숙하게 느꼈습니다. 한국인보다 백인이 더 좋아 보인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받아 든 저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답은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른들의 편견을 그대로 따르거나 미디어의 영향을 비판 없이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무지가 편견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 활동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유네스코(UNESCO)의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CCAP)’ 활동을 소개했습니다. CCAP란 문화 간 이해를 위한 국제 이해 교육의 대표적 활동입니다. 주로 어느 나라의 외국인 자원봉사자가 교실에 방문하여 그 나라의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4차시 프로젝트 학습을 구성했습니다. 바로 체험형 프로젝트 학습입니다.

CCAP 관련 수업모형

실천 과제	중점 사항	실천 내용	지도 방법
인지적 문화 수업	각 나라의 지리적 환경	세계지도에서 찾아 백지도 그리고 지명 넣어보기	조사 · 지도 학습, 개별 및 그룹
	각 나라의 국기	국가를 그리고 그 뜻 알아보기	
	각 나라의 언어	각 나라의 간단한 언어 알아보기	
	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각 나라 사람들의 모습 알아보기	
외국인 자원 봉사자와 함께하는 체험적 문화 수업	각 나라의 언어	간단한 언어로 인사해보기	수용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외국인 선생님 알아보기	개인적인 질문, 포옹하고 사인 받기	
	환영의 공연	우리의 문화를 이용하여 공연하기	
	경제·사회적 상황과 역사와 문화에 관한 설명 듣기	경제·사회적 상황과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기	
	음식문화	자원봉사자 출신국의 대표적인 음식 알아보고 만들어보기, 한국 음식 함 께 만들어보기	
체험활동	각 나라 어린이들의 놀이 해보기, 노래 부르기, 춤추기, 옷 입어보기		
정리 및 평가	새롭게 알게 된 점과 함께 활동하면서 느낀 점 정리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그림 그리기	
	책 만들기	책 만들어 전시하기, 인형 만들기	

이러한 체험형 프로젝트 학습은 많은 변화를 낳았습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에게 아프리카 친구들을 그려보라고 하면, 타잔처럼 옷을 입고 손에는 돌도끼를 들고 동물들을 사냥하며 원시인처럼 사는 사람들을 그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체험형 프로젝트를 통해 카메룬에 살고 있는 프란시스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체험 활동을 함께하면서 친해진 외국인 자원

봉사자들은 개별적으로 학교를 다시 찾아올 정도로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그러한 관계 안에서 학생들은 누군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프리카에 돈이 있나요?”

사실 이런 활동들은 모두 10여 년 전부터 실시되어 왔습니다. 요즘은 외국인 인이 교실을 직접 찾아오는 활동 대신 다른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실에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요즘 이용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영상 지도입니다. 이 활동 역시 한 학생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 돈이 있나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영어 시간에 우리나라 돈은 원, 일본 돈은 엔, 중국 돈은 위안, 미국 돈은 달러, 유럽 돈은 유로라고 하자 어느 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도 사이트에 접속하여 케냐 나이로비의 빌딩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다를 바 없는 빌딩 숲과 공원을 본 아이들은 놀라면서 아프리카를 ‘낯설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 이 활동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꾸려 세계시민부 시간에 실시했습니다. 지도 사이트를 이용하여 아프리카의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사막이나 열대 우림으로 뒤덮인 야생동물의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아프리카가 사실은 남한 면적의 300여 배에 이르는 광활한 대륙이고, 55여 개의 크고 작은 나라가 있으며, 도시화율도

47퍼센트에 이른다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하면 빈곤과 가난을 생각하던 아이들이 관련 언어로 빌딩, 리조트, 공항, 국립공원과 같은 새로운 단어를 이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이렇듯 의외로 간단하게 오기도 합니다.



2

최근 중점을 둔 활동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모두 알다시피 2015년에 인천 세계교육포럼이 개최되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SDGs)가 공표되면서 세계시민교육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세계시민교육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글로벌 거버넌스가 되므로 학생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학습 주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과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 발전 목표가 중심인 주제 통합 프로그램으로 개발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 의외로 간단하기도 합니다. 모두들 담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금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금연 광고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금연 역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세부 목표란 것을 아시나요? 담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해로워서 세계인

의 걱정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여러 목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과와 연계되기 쉽고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로도 골고루 학습할 수 있습니다.



포스터에 담은 세계의 문제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교과 과목들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활동을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미술 시간을 이용하여 세계의 문제를 토의하고, 세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각의 문제를 살펴보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골라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두 차시 미술 시간 중 한 시간은 토의하고 한 시간은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40분 안에 만들었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단어를 어려워할 뿐 물 문제나 에너지 문제 혹은 생태계 보호에 이미 익숙했으니까요. 완성된 포스터를 보며 저는 이런 문제를 통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

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학생들은 그래도 여전히 지속 가능이라는 말을 어렵게 느낍니다. 실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발전’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정의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미술관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근처 10분 거리에 있는 미술관에서 바로 그 주제로 전시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제 학습은 교과와 연결되어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도움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미술 시간을 이용하여 미술관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쓰레기를 가지고 공공 예술 작품을 만든 작가의 전시를 보고 도슨트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 시간에는 양성 평등, 불평등 감소, 에너지 문제를 학습했습니다. 또한 도덕 시간에는 ‘다양한 문화, 조화로운 세상’ 단원에서 지속



3

작은 차이가 만드는 기적(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꿀팁)

가능 발전 목표 중 16번째 문제인 평화를 배웠습니다. 과학과 도덕의 단원을 이용하여 물 문제를 배웠습니다. 국어 시간에 제인 구달의 글을 읽고 자연스럽게 생물 다양성에 관해 토의했고, 아동 노동에 대해 배우면서 8번째 목표인 일자리에 관해 학습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학습으로 인류가 미래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행동을 통해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참여하여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 가운데 몇 개는 다루지 못했는데, 예를 들어 9번 목표인 '산업, 혁명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은 초등학생들이 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 하지 못했다고 원통해할 정도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심 주제 학습을 재미있어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비결

저는 교사로 발령받은 첫해에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국제이해교육을 공부하면서 본격적으로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선생님을 뵈었지만, 세계시민교육을 꾸준히 실천하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작은 차이'였습니다. 충실한 교육 과정 이행을 기반으로 학습 주제, 교재, 교수법에 대한 작은 차이를 두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것, 그 꾸준한 노력이 결국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고 교사의 전문성도 신장시키더군요.

지금 생각하는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열정'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이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학습자이지만, 그다음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의 의식이 깨어 있으면 교재가 부

족하거나 예산이 없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역시 교사는 변화의 동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므로 교사들을 어떤 대상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로 보고 믿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사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에 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교육 자료 창고로 쓰이는 제 블로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로 일한 제게 가장 큰일은 세계시민교육연구회를 운영하고 시도 선도교사님과 연수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실천하던 지도안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무려 30여 분이 댓글을 다시더군요. 그래서 자료에 목말라 있는 분들을 위해 간단한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geostorymeans>





실천으로 현실을
변화시키는 배움

박성기 선생님은 2015년 세계시민교육 경기선도교사, 2016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경기 하남고등학교에서 역사 교과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세상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에서 20여 년간 근무하는 동안 제가 맡은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는 입시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입시 외에 다양한 삶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시도하며 실천하는 가운데 때로 실패도 경험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것,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도록 하는 것 역시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다양한 세계를 학생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들의 만남

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극복해야 할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라고 생각했습

니다. 아직 다른 나라를 접해보지 못한 많은 학생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일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누군가가 만든 일본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한편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만든 가치관을 의식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왔고, 한국 친구들은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 온 일본 친구들은 평범한 가정에서 생활하며 경복궁에도 가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역사관에 가서 어두운 과거를 보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하고 행동했습니다. 일본에 돌아간 학생들은 지역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알리기 활동을 합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 학생들은 일본 사회의 정돈됨과 검소함을 봅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일 간의 현실 문제를 토론하며 건강한 시민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다양하고 직접적인 공동의 경험을 통해 서로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친구가 된 이들은 서로를 이해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 교사들과 연대하기

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교사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생각하기 위한 수업도 진행합니다. 저는 한국 역사 선생님들과 일본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답사를 다니고는 합니다. 홋카이도에서는 영친왕 이은이 다녀간

흔적을 보았습니다. 오사카 지역에서는 왕인, 아직기로 이야기되는 도래인부터 식민지 시대에 뿌리내린 한국인들의 삶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디를 가든 모두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활기찬 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

저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경기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활동을 하면서 제 경험들보다 아름답고 활기찬 교육을 실천하시는 분들을 많이 뵈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꾸기 위해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선생님. 지역 문화유적과 환경운동을 연계하여 작은 변화를 이끄는 활동을 고등학생들과 함께 실천하시는 선생님. 옥상 텃밭을 중학생들과 함께 가꾸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시는 선생님. 도구 과목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다르지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현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하시는 선생님. 모두 교육 현장에서 열심인 분들입니다.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디지털 사회가 되어 다양한 미지의 공간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얼굴을 맞대고 경험한 소중한 만남들은 세계 더 큰 세계를 보고 경험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서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한 활동은?

여러 선생님의 실천 사례 공유

올해 3월 경기세계시민교사 모임의 회장을 맡으면서 역점을 둔 사업은 ‘사례집 제작’과 ‘일상생활에서의 세계시민’이었습니다.

2015년 3월 경기도에서는 인천 세계교육포럼을 계기로 경기세계시민교사 모임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5월에 열린 세계시민교육포럼 행사 외에 이렇다 할 연구 모임이나 사례 발표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경기도의 유네스코학교, 다문화학교, 국제이해교육 실천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위 학교 선생님들이 보다 큰 규모로 세계시민교육의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활동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연수를 받고 가장 큰 목표로 삼은 것은, 모임에 참여한 여러 선생님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로 만나야 했습니다. 지

금까지 지역별로 조금씩 모임이 나타났지만, 보다 광범위한 모임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모임을 결성한 후 전달 연수를 5월과 6월에 두 차례 했습니다. 이때 이론과 함께 선생님들의 실천 사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역시 경기도에는 많은 고수가 숨어 계셨습니다. 하지만 넓은 경기도에서 각자 활동하는 선생님들을 하나로 묶고 모임을 가지기에는 서로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기도 한가운데에 서울이 있습니다. 교육청도 북부와 남부로 나뉘는데, 북부에서 모임이 열리면 3시간에 걸쳐 참석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 서로 성함도 모두 익히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밴드를 만들었고, 꾸준히 글들을 올렸습니다. 지역이 넓어서 자주 모이지는 못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열정들이 있으셨기에 흔쾌히 자료들을 공유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2016년 11월 23일 현재 4개 분과로 이루어진 자료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11월 30일쯤 각 선생님들이 그동안 실천한 사례를 담은 실제적인 자료집이 완성 단계에 이를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책이 나올 때면 아름다운 자료집이 완성되어 각자의 손에 쥐여지지 않을까 합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다

저는 일본에 있는 한국 학교에서 2년간 근무하고 2015년에 귀국했습니다. 1998년부터 학교에서 국제이해 교류 동아리 ‘우·돌·끼(우리는 돌아다니는 데 끼가 있다)’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국내 여행을 위한 모임이었는데



데, 점점 세계로 범위를 넓히고자 했습니다. 저는 역사 교사로서 동아리 회원들만의 활동에서 벗어나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학생들과 의논하여 다른 동아리와 함께 격주로 아침 등갯길에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들을 소개하려 했는데, 먼저 어려운 내용이 아닌 쉬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그 나라말로 인사하기. 영

어 문화권 이외의 언어를 접하기 힘든 학생들은 “앗살라 말라이쿰”이라는 태국어 인사나 “구텐 모르겐”이라는 독일어 인사들을 생소하게 여겼습니다. 아침 등갯길에 학생들과 웃는 얼굴로 인사하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만든 알림판은 학교 게시판에 한동안 게시했습니다. 아침에 얼굴을 찡그리며 등교하기 마련인 학생들과 인사하기 위해 초코파이 같은 간식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각 나라 음악을 들으며 대표적인 음식도 소개했던 만남의 시간들. 결코 서두르거나 많은 것들을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적신 그 마음들이 지금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도 다른 문화권에 대해 조금은 열린 마음을 갖게 하지 않았을까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꾸준한 투자가 바로 교육 아닌가 합니다.

3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의 인식’에서 실천으로

이미 세계를 무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학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 참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 학생들에게 세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과 올해 활동하면서 제가 느낀 점 중 하나는 우리의 활동이 ‘시혜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물 부족, 환경 문제,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대부분의 활동이 제3세계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아동과 주민들을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보다는 내가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고민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 활동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는 기우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활동의 특징은 실천을 통해 현실을 변화시키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

다. 일상의 배움이 '사실의 인식'에 그치지 않고, 실천을 통해 미래를 보다 낮게 변화시키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세계의 학문, 철학은 인식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지식의 증가가 사고의 증가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배움이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가 눈에 보이며 또 다른 실천으로 변이되는 것이 우리 세계시민교육의 매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 중 하나가 '기록', '실천을 통한 현실의 변화'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미 역사에서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고 아름다운 실천들

가끔은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들이, 전등 한 번 끄는 실천이, 일본 학생들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 가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감을 잃곤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모임에 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 아름다운 실천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2016년 중앙선도교사로서의 임기는 곧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천 속에서 만난 다양한 선생님들과의 만남은 새로운 인연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동하는 세계시민을 위한 씨뿌리기

서지혜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원주 평원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평소 다문화 교육과 해외 교육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2016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 선발된 후 더 적극적으로 학급 아이들과 교실 안에서 작은 변화를 꽃피우기 위해 다채로운 활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선도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세계시민교육과 스마트 교육을 연계하는 수업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강원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생님들과 연구회를 조직하여 우수 수업 사례를 발굴하고 퍼뜨리는 역할을 하며 강원도에 세계시민교육의 씨앗을 퍼뜨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서로를 구분 짓는 다문화 교육

제가 근무하는 곳은 농촌 지역이면서 주변에 공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이주 여성의 자녀들이 많고 탈북 가정의 자녀들도 심심치 않게 있어서 이들의 학교 적응과 교육에 관심이 높은 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들 모두를 '다문화 학생'이라는 테두리 안에 넣고 일명 '다문화 교육'을 해왔습니다.

저도 한국어 사용이 어색한 다문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편 이들이 한국의 전통문화를 다채롭게 이해하도록 전통 음식 만들기와 전통 놀이 체험, 현장 체험 학습 실시 등을 진행하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반의 한 다문화 학생이 친구와 함께 전통 음식 만들기 신청 안내장을 돌려주며 "선생님, 저 이제부터 다문화 교실 안 갈래요"라고 선언하듯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라며 그 이유를 묻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우리 교실에서만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고향이 필리핀이지만 집에서 필리핀 음식을 먹지 않고 한국 음식을 먹어요. 친구들보다 김치도 많이 먹는다고요.”

아이의 말을 듣고 나자 뒤통수를 시원하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문화 대상 학생들을 나뉠대로 잘 가르치겠다고 한 활동들이 도리어 그들을 우리와 다른 사람으로 구분 지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무언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고 행동하는 용기

저는 제2기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 선발된 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에서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고 다른 지역의 훌륭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개념이 잘 잡히지 않던 세계시민교육에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다문화 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세계시민교육이 해소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접하지 못한 선생님들 가운데는 다문화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동일시하거나 두 교육의 차이점을 궁금해하며 묻는 분도 계십니다. 그때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은 다문화 교육을 포괄하며, 다문화 교육이 머리에 머무는 교육이었다면 세계시민교육은 가슴으로 내려와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발까지 전해져 행동하게 하는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2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한 활동은?

즉, 다문화 교육이 지식 이해나 단발성 체험 위주의 교육에 머물렀다면, 세계시민교육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깊이 공감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 공감들이 모여 어느새 직접 행동하는 주체적인 시민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는 부모님이 외국인이거나 새터민인 학생들만 교육 대상인 것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의 다채로운 문화 속에서 어울려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세계시민이고, 세계시민교육의 대상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 문화의 틀 속에 끌고 들어와 맞추려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 없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걷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시민 의식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아직 머리에 머물러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두근대는 가슴으로, 그리고 움직이는 발까지 끌고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세계시민교육과 스마트 교육의 콜라보레이션

2016년에 처음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연수를 받을 때 저는 세계시민 교육을 우리 학급과 학교에 적용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 돌아오니 찬물을 끼얹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학교 중점 혹은 학년 중점 교육으로 추진하는 각종 프로젝트와 행사가 넘쳐나 세계시민교육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단 저 혼자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교육 방향이 수시로 바뀔 때마다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각종 업무와 정책, 사업 등으로 1년 내내 숨 가쁘게 달려야 하는 현장이 바로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 세계시민교육이 낄 자리가 없다면 기존에 하던 것에 세계시민교육을 녹여내자는 생각에 당게 되었습

니다. 우리 학교는 소프트웨어 교육 중심학교로 지정되어 스마트 패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속 환경도 우수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시민교육과 스마트 교육의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10살 아이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택하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내용과 활동을 거부감 없이 잘 소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세계시민교육에 스마트 교육이라는 옷을 입혀 선보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태어나 누구보다 컴퓨터와 친숙하고, 친구보다 스마트폰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요즘 아이들의 취향에 맞추었으니 반응이 좋을 수밖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았던 활동은 클라우드 펀딩 게임을 이용한 사막화 수업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어서 지구촌 이슈 가운데 무겁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주제보다는 10살 아이들이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 텃밭과 비닐하우스가 갖추어져 학생들이 직접 농사를 짓는 생태 교육을 하므로 ‘사막화’를 주제로 수업하면 아이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은 중국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인위쩐’ 이야기를 영상으로 본 후 사막화의 개념을 알아보고, 사막화 현상이 어째서 일어나며 해결 방법은 무엇

인지를 토론하였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합의한 해결 방법은 ‘인위쩐 아줌마처럼 사막에 나무를 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막에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게임을 통해 실제 사막에 나무를 심어주는 클라우드 펀딩 어플을 활용했습니다. 게임을 클리어할 때마다 나무에 자기 이름을 지어 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실제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 중국, 몽골 등의 사막에 나무를 심는 착한 게임을 통해 아이들은 성취감과 보람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게임도 즐겁게 하고 사막에 나무도 심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스마트 교육은 단순히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시민교육은 스마트 교육 외에도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소스입니다. 새로운 요리를 만들려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기 전에 기존에 잘해오던 요리에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소스를 첨가해보세요. 전혀 새로운 맛으로 우리의 입맛을 매혹시킬지도 모르니까요.



나로 인해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장기 프로젝트로 이어진 세계시민교육

2016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저의 주요 임무는 각 시도로 돌아가서 세계시민교육의 물결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려는 내가 다른 동료 교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강원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생님들과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이런 활동을 하며 세계시민교육에 날개를 달아보고자 합니다’라는 식의 부끄럽고 수줍은 발표와 연수를 마치고 이후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2학기 모임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중등 선생님께서 제가 연수에서 공유했던 활동들을 아이들과 직접 해보셨다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아이들과 했던 활동에 본인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추가하여 더욱 농익은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학급 홈페이지에 세계시민교육 코너를 마련하여 아이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받아 함께 수업을 만들고 계셨으며, 그 활동을 발전시켜 교내에서 캠페인까지 하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도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좋아 연말에 한 달 동안 진행할 장기 프로젝트



를 수립하신 상태였습니다. 저도 감히 시도하지 못한 일이어서 양해를 구하고 계획서를 받아보니, 조별로 한 달 동안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이슈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심도 있게 탐구·토론하고, 마지막 주에 연극, 노래, 댄스, 플리마켓 등으로 다양하게 결과물을 전시하고 표현하는 마당까지 계획하는 등 매우 짜임새 있었습니다.

중등 선생님께서는 제 수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시도해보신 후 더욱 용기를 내어 장기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하셨으나, 감사한 마음은 제가 더 컸습니다. 오히려 제가 선생님께 한수 배워야 할 것 같아 프로젝트의 마지막 발표 날에 초대해달라고 요청 드렸답니다.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파도타기

무엇이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기분 좋은 전염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변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물장구가 이내 큰 파도가 되어 큰 흐름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내가 먼저 세계시민임을 인지하고 주변에 작은 씨앗을 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 씨앗은 어느새 예쁘고 아름다운 꽃이 되어 우리 주변을 더욱 밝은 빛과 향기로 물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벌과 나비, 사람들이 자연스레 찾아와 세계시민교육의 텃밭을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작지만 멋진 세계시민을 위한 교육

최제오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로서 광주동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한 관심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접했을 때는 활동의 가닥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 그것이 추구하는 주제들은 이미 교과서와 각종 창의적 체험 활동의 학습 목표에 녹아들어 있었고, 재방송 같은 느낌을 주었다.

방학 기간에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했고, 이후 광주에서 시도선도교사 전달 연수를 진행하였다. 그 후 학생들과 자주 세계시민교육 수업 활동을 하고 관련 책자들을 찾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해갔다. 그러면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내 생각도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세계시민교육은 실천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물론 각 나라의 문화와 활동 배경에 대한 이



2

2016년 가장 기억에 남는 세계시민교육

해도 필요하지만 실천과 참여가 이해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돕고 싶거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먼저 시작해보는 것, 그것이 세계시민교육 활동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이고, 실천은 우리 지역과 국가, 민족이란 협소한 틀 안에서의 실천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나와 상관없게 여겨지는 것들과 내가 당장 손해 볼 것이 없는 지역과 문제에 대한 참여와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이었다.

이해관계를 벗어난 실천을 위하여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세계시민교육의 평화, 민주주의, 인권, 문화 다양성, 지속 가능 발전 관련 주제들은 어찌보면 잘 교육되고 실천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후진국이든 상관없이 다른 나라의 눈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시민교육을 살펴본다면 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그들은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를 자신들과 상관있는 곳에만 연관시키고 있으며, 실천 또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들어맞는 부분에만 집중시키고 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그 말들이 두렵기 시작했다. 나는 나와 우리 아이들이 그 말들에 대해 더 당당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25개국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대상 공개수업

2016년 6월 27일 나는 광주동산초등학교 4학년 4반 학생들과 함께 세계시민교육 관련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이 수업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으로 주관, 운영하는 제1회 글로벌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 25개국의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학생들은 수업을 위해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중 하나인 아동 인권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했다. 세계의 아동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영양실조, 물 부족, 아동 노동, 소년 병사, 감염이라는 5개의 소주제를 선택하여 아동 인권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공개수업에서 프로젝트 활동 탐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3

2016년의 세계시민교육 중점 활동

작지만 멋진 미래 세계시민들의 모습

공개수업 후 진행된 수업 협의회에서는 수업에서 볼 수 있었던 우리나라 세계시민교육의 특성과 장단점이 깊이 논의되었다. 서로가 나라별로 다른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성공적인 세계시민교육 구현 방안을 조언하고 공유했다.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수업의 의미가 더욱 깊어졌다.

공개수업을 참관한 한 전문가는 “수업 중에 보이는 교사와 학생 간의 따뜻한 교류가 인상적이었다. 서로를 배려하고 경청하는 모습 속에서 작지만 멋진 미래 세계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했다. 광주동산초등학교 윤숙자 교장은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낯설지만 따뜻한 인상을 지닌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들과의 공개수업을 통해, 평소 공부해온 세계시민교육 주제들이 자신들만의 관심사가 아닌 세계 공통의 이슈들임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들의 꿈을 국가와 민족의 틀 안에 가두지 않고 글로벌한 세상을 향해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싶다는 뜻을 품게 되었다.



다양한 생태학적 활동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 수업

나는 올해인 2016년의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구상하면서 학생들이 더욱 실질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주제를 생각해보았다. 민주주의, 인권, 평화, 지속 가능 발전, 문화 다양성 가운데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하며 공부할 수 있는 주제를 택하고 싶었다. 광주의 지역적 특색을 생각하다 보니 민주주의와 인권도 매력적인 주제였고, 다문화 학생들이 늘고 있는 학교 현장을 볼 때 문화 다양성 교육도 필요하다 싶었다. 학생들과 논의한 끝에 결국 생태학적 활동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즉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공부를 해보기로 하였다.

먼저 교실 밖 텃밭 활동을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조그맣게 주어진 학급 텃밭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을 느끼기 시작했다. 봄을 맞아 자란 잡초들을 뽑으며 텃밭을 정리했다. 방울토마토, 가지, 옥수수, 고추의 모종을 심고 물을 주었



으며, 어느 정도 자라자 지주대를 세우고 줄기를 묶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왔다. 6월이 지나며 따가운 햇살이 왕성해지자 열매들이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하였고, 아이들은 땅과 바람, 물과 햇볕이 주는 생명의 기적에 놀라움을 갖게 되었다.

교실 안에는 좀 더 다양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였다. 창가 화분에 방울토마토와 강낭콩을 심어 줄기가 창가를 타고 오르도록 하였고, 배추흰나비 애벌레, 장수풍뎅이, 매미, 사마귀, 메뚜기, 가재 등을 키우고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농촌에 가서 모심기를 하고, 산촌에 가서 매실을 따고, 어촌에 가서 바지락을 캐는 체험을 하였다. 특히 가을에는 모에서 난 벼를 수확하여 가래떡을 만들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학생들과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였다.

다양한 생명 현상을 목격한 아이들

이러한 다양한 체험을 하는 중간중간에, 우리와 다른 지역들과 우리와 다르게 생활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태 체험이 더 의미 있어지기 위해 어떤 활동이 이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결론은 환경과 생명이었다. 아이들은 땅과 공기, 물과 햇볕이 준 축복 같은 경험들을 떠올렸고, 그것의 공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생태 체험에서 다양한 생명 현상을 목격한 아이들은 이 모든 환경의 기본이 지구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들의 꿈 안에 글로벌한 관점의 의미 깊은 요소를 포함시키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되었으며, 서로를 격려해주었다.





작은 몸짓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기를 바라며

박지윤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인천 송원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
나로 인해 내 주변에서 일어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글로벌 이슈, 나의 문제인가 너의 문제인가?

제가 학년부장으로서 학교 안에서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과정에 반영한 지 이제 2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 저는 세계문화예술활동 및 토의·토론을 통한 세계시민의식 기르기라는 주제로 5학년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운영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글로벌 이슈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너희의 문제라고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사계절 행사, 지구촌의 물 부족, 아동노동과 아동인권 바로잡기 등의 다양한 주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들은 이런 이슈들이 우리의 문제임을 공감하는 한편 세계시민으로서 연대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실천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식이 아이들의 가슴에 자리 잡게 되었을 뿐 아니라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력도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아동노동과 연관된 회사를 징벌하자고?

얼마 전 아동인권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가 나이키 축구공에 관한 아동노동 동영상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토의·토론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각자의 입장(다국적 기업, 부모, 아동, 정부, 유니세프)에서 제시하도록 해봤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가 아동노동과 연관된 나이키 사로 하여금 그 나라의 교육, 의료, 봉사활동에 기부하도록 강제하여 책임을 지게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아동노동 반대 캠페인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 사이트에 올리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유레카! 저는 이 아이들이 진정한 세계시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아이들은 그저 공황과 연민 때문에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을 동정하며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잘 태어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가져와 다양한 해결책과 실천 방법들을 스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물 절약 실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과 같이 작은 일이라도 자신부터 실천하려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름답고 고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3자의 눈으로 방관하며 어려운 나라의 사람들을 연민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저금통에 동전을 넣는 기부의 실천에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날갯

짓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태풍을 만들 수 있듯이, 당장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나의 작은 관심과 실천을 통해 너의 문제가 나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연대의식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 하는 것은 진정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한 활동은?

상생을 위한 디딤돌에 대한 각성

올해의 주요 활동으로 2기 중앙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 2기 선도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국제화특구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과정의 교수-학습자료집 개발, 그리고 교과연구회 우수 사례 및 에세이집 발간 등을 꼽을 수 있을 듯합니다.

전국의 중앙선도교사들과 함께한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각 지역만의 특징과 사례 및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교사들의 역량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배움 너머의 성찰, 성찰 너머의 실천 의지에 대한 각성을 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하였기에 상생을 위한 디딤돌로 다가서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집단지성의 놀라운 힘을 체험하다

열정과 역량이 넘치는 인천 지역의 2기 선도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장학사님과 1·2기 중앙선도교사들이 모여 세계시민교육 워크숍을 열기도 했습니다. 1차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에서, 2차는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진행했는데, 서로 만날수록 긍정과 열정의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한 집단지성의 놀라운 힘이 발휘되더군요. 다른 교사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저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천의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책으로 준비하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국제화특구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과정인데요. 교수-학습자료집 개발을 위해 네다섯 분의 교수님과 함께 네다섯 분의 팀원이 각각의 주제(평화, 인권,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연대의식, 공정무역 등)로 교수-학습 모듈을 개발했습니다. 우리 팀은 연대의식이란 주제로 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바쁜 학교 스케줄 때문에 소화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막상 모이자 밤늦은 시간까지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교수님들의 폭넓은 강의를 들으며 게임 모듈까지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회장에서 장장 8시간 동안 다른 팀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힘들거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의 배움에 대한 열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관련 책자가 나오면 교과연구회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인천의 경우 세계시민교육 교과연구회가 두 번

째 교수-학습 우수 사례 및 에세이집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인 2017년 2월쯤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3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려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저는 첫째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 관리자의 마인드 변화 및 지원, 둘째로 교사, 그리고 셋째로 학생의 3가지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 관리자가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를 이해하고 그 고찰을 바탕으로 교사들이 현장에서 실천할 만한 장을 만들고 지원하는 변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일개 교사가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싶어서 교실에서 아무리 실천한다 해도 관리자들과의 마인드와 다르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어렵고 이벤트 성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관리자들과 교사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연수 및 사업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교실에서 실천하는 교사의 경우 먼저 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새롭고 또 다른 패러다임의 교육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문화인, 세계인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한다는 생각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 후에 교과와 방법적으로 연계하여 재구성하고 주제별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하나의 주제로 다양한 소재와 실천 방법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지루함이나 반복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연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가정과 연계하여 학부모도 동참하도록 하고 점차 지역에서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계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친구들의 언어·생활·환경·사회·문화와 예술의 다름을 다양성의 존중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토의·토론 활동을 통해 전 지구적 문제를 공감하고 공유하며 연대의식을 갖고 관련 활동을 지속적인 실천으로 연계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연대의식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공유하며 실천하는 학생의 경우 내재적 동기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계시민이라는 연대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공감은 되지만, 즉 머리와 가슴으로는 알지만 손과 발의 실천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어른인 우리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꾸준한 실천을 위해서는 연대의식이 필요합니다. 즉, 나만의 문제, 너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연결고리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안목과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연대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비록 작은 몸짓일지라도 나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함께 바다가 되기 위하여

“물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는 류노스케 사토로의 말이 생각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관리자들과 교사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원이 시행되고, 선도교사뿐 아니라 이미 실천하는 교사들이 함께 교과연구회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나누고 각 학교에 확산시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듯하더라도 이미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이 결국 21세기보다 나은 미래, 희망을 꿈꾸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리 활동과 결합한 세계시민교육

남윤정 선생님은 2기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부산 강서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가장 보람 있었던 활동으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는 동아리 활동을 꼽습니다. 선생님은 교사가 된 첫해부터 국제교류 동아리, 반크 동아리, 영어 심화학습 동아리 등을 맡아왔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다문화 이해, 역사 이해,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 등에 힘쓰면서 자연스럽게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영어 심화학습과 인문학 동아리를 겸하는 세계시민 동아리를 학생들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중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을 기를 수 있도록 언어영재교육원, UN 글로벌 영어인재원 등에서 함께 수업을 꾸려나가며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한 활동은?

세계시민교육으로 이어진 동아리 활동

저는 올해 중앙선도교사로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 동아리 운영에 가장 중점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저는 담당 과목이 영어여서 영어 심화 동아리나 국제교류 동아리를 주로 맡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영어 심화 동아리를 주로 맡았는데, 학생들이 영어로 활동을 한다는 데 부담감이 커서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작년에는 영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동아리를 운영하였는데, 외국인 환경단체를 초청하여 특강을 듣거나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연말에 정리하면서 제가 해온 활동들의 공통점이 영어 말고도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시민교육에 관심을 갖고 더 배우기 위해 중앙선도교사로도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앙선도교사로 활동하도록 해준 원동력이

바로 동아리였기에, 올해도 동아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문학 소양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결합하다

올해 제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동아리는 ‘세계시민 동아리 SPEC’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으며, 인문학 테마별 강의 및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 인문학 동아리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중앙선도교사 연수가 끝난 후 2016학년도 연간 동아리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던 저는 인문학 소양 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결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문학 소양 교육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이고, 인간이 가진 가치를 탐구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은 바로 그러한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자아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

신이 사는 공동체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세계시민교육의 영역과 인문학의 영역을 교차시켜 몇 가지 테마를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특강을 듣고 학생들이 활동하며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테마는 크게 세계시민 의식 및 자아정체성, 환경과 공존, 다문화 이해, 국제기구 및 ODA, 그리고 인권 및 사회정의로 나누었습니다.

지구별 공동체 이야기의 활동

동아리의 이름이 왜 SPEC인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 듯합니다. 저희 동아리의 최종 목적은 세계시민을 테마로 한 잡지를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SPEC은 Stories of Planet Earth Community라는 문두어로, 지구별 공동체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글을 씁니다. 우선, 미래의 꿈과 진출하고 싶은 분야에서 세계시민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진로에 관해 탐구할 수 있는 슬라이드 제작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시민이나 ODA에 관한 특강을 들은 후의 소감문, 외국인 환경단체와 함께 개최한 Clean-up Day에 참여하여 부산 온천천 주변 환경을 정화한 활동, 중국 충칭 시 찰화고등학교와의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한 후의 보고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역센터 소장님과의 인터뷰, 국제개발협력 및 ODA와 세계시민 의식 등을 주제로 한 글짓기 공모전 작품 등을 썼고, 이 모든 자료를 모아서 잡지를 제작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번에 제작한 잡지에 대해 매우 뿌듯해했습니다.

2

선도교사 활동에서 아쉽고 어려웠던 점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했던 변화는?



너무도 바쁜 학생들

인문계 고등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내신 성적 관리부터 시작해서 교내 대회 출전 등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가끔 주말을 이용하여 교외 체험 학습을 할 때도 주말 학원이나 과외 시간과 겹치는 일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최대한 학교에 있는 시간을 활용하려 했지만, 동아리 활동 시간이 최소한으로만 확보된 교육 과정에서는 아직도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진행되는 교외 체험 학습이나 활동이 좀 매력적이면 학생들이 학원 혹은 개인의 스케줄을 변경해서라도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은 여전히 바쁘겠지만요.

교사의 시간 부족

두 번째로 어려웠던 점을 이야기하자면 교사들의 시간 부족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독립된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하던 일에 추가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의 시간도 매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원래 하는 일에 세계시민교육의 요소를 녹여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냐고 여러 연구나 연구회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위한 작업에도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하는 시간도 이렇게 부족했지만, 부산시 세계시민교육연구회 선생님들과 충분히 많이 만나지 못한 것도 아마 모두가 바쁜 업무 속에서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우리가 맡은 여러 역할들은 온전히 세계시민교육에 열정을 쏟도록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과생도 '세계시민'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점은 동아리의 이름과 테마를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 설정한 점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을 학생들이 꼭 알아야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성급하게 동아리 이름에 '세계시민'을 포함하는 바람에 다루는 내용의 폭이 너무 커졌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테마를 심도 있게 탐구하는 것도 의미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는 '세계시민'이라는 이름이 인문사회 과정(문과) 학생들과 자연이공 과정(이과) 학생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아리에는 자연이공 과정 학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이런 건 문과생이나 공부하는 거잖아요'라는 말을 남기고 화학 동아리와 물리 동아리로 떠났습니다. 앞으로 통합교육 과정이 실시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사라질 거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렵고 아쉬웠던 점을 생각하다 보니 더 좋았던 기억만 떠오르는 걸 보면 앞으로의 세계시민교육은 더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점과 아쉬움은 이제 보강하면 될 테니까요.



3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려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교 문화

제가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여, 전교생에게 폭넓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제 역량이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는 동아리 차원에서 시작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교사 개인이 전체 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프로그램의 설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그럼 '너 혼자 일 다 하라'는 식의 반응이 있을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변명일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학교 교육 과정에 세계시민교육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 모두가 교육 과정 구성 및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우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밑바탕을 그리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도 포함되어야 하겠죠. 최근 어느 강연에서 듣기로는 쿠바의 학교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쿠바가 여러 위기를 잘 견뎌내는 이유도 이 공동체에 기반한 특유의 복원력 덕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쿠바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매우 다르지만,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교육은 무한한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교육도 교사들끼리만 부르짖기보다는 교사가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지역공동체가 함께 힘을 써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함께 세계시민 의식 기르기

하지만 또한 세계시민교육이 엄청나게 어렵고 거창한 것이 아닌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세계시민'이라는 단어를 꼭 쓰지 않더라도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돕는 것이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부터 세계시민 의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 자신이 세계시민이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매순간 고민합니다. 나도 모르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나는 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용기를 내지 못할까? 왜 내 생각을 실천하는 추진력이 약할까? 하지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의미가 있다고 스스로 위로해 봅니다. 앞으로도 이런 고민을 학생들과 함께 한다면 세계시민교육이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충만한 공동의 미래 준비하기

박지현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세종 2016)로서 현재 한솔중학교에서 영어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2011년부터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교사로서 뿌듯한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애쓰는 미래세대 양성을 교육자로서의 사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미래를 만들 역량 있는 인재를 기르는 것

세계시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과 세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는 것, 그 인식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것,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전적 정의로 교육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및 바람직한 인성과 체력을 갖도록 가르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라고 한다. 여기에 사견(私見)을 덧붙이자면 교육은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 자라서 살아갈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미래를 만들어갈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과 대안 실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세계는 언제까지나 지속 가능할까? 지속 가

능하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지금보다 살기 좋고 행복할까? 아님 더 각박한 환경에서 힘든 삶을 유지해야 할까?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개발로 인한 지구 환경 변화는 우리 삶의 터전을 흔들고, 전쟁과 테러, 인권 탄압,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문제는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문제를 야기하고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바로잡음으로써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도록 우리의 미래 세대를 교육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부모의 과도한 보호와 애정으로 미래 세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나약해지거나, 자기중심적 사고로 타인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배려와 존중, 나눔, 소통, 봉사, 협동 능력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채워줄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고, 우리의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갈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우리 인류가 희망으로 밝게 빛나는 내일을 기약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에 반드시 세계시민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한 활동은?

세계시민교육의 싹 틔우기

중점을 둔 활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시민교육의 싹을 틔우자. 연구회 활동을 시 선도교사 중심으로 강화하여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지 보여줄 샘플링 작업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세계시민교육 시 선도교사 직무 연수를 시작으로 연구회 활동이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힘썼으며, 교과 시간 및 창의적 체험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과정안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였고, 공개수업 및 수업 평가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교육 과정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지역 연합 활동하기

둘째, 학교 단위에서 아직 시도하기 어려운 활동을 지역 연합 활동을 통해 시도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좋은 교육의 경험을, 교사들에게는 참여를 통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7월에 초·중·고 13개교가 연합하여 세계인권수호다짐대회를 개최했다. 13개교 교사들과 선도교사들이 모여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여 멋진 행사를 만들어냈다고 자부한다.



3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세계시민교육 홍보 활동

셋째, 세계시민교육을 널리 알리자.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려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 7월 세계인권수호다짐대회뿐 아니라 11월 세종 지역 유네스코학교 교육 활동 사진전도 개최하여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모습을 학교 간에 공유하고, 미디어를 통해 일반인 대상의 홍보 활동에도 힘썼다.



아이들의 이타적 사고와 자발성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현장에서 꾸준히 실천한 결과를 정리해보려 한다. 첫째, 아이들이 성장했다. 3월 지구촌 불끄기 플래시몹, 4월 지구의 날과 게릴라 가드닝, 5월 사랑의 메시지 전하기, 7월 파머스마켓과 아나바다 장터마당 개최, 옥상 텃밭 가꾸기, 매주 수요일의 잔반 zero 캠페인, 에너지절약 스티커 제작·배포, 신생아 백신 기부를 위한 아우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회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타적 사고를 시작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세상을 위해 변화가 필요한 곳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자발성과 주인의식이 발휘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둘째, 아이들을 얻었다. 교과 교사와 담임 활동만으로는 얻지 못할 마음 깊이 공감하는 제자들이 생겼다. 세계시민교육 활동에서 만난 아이들은 끈끈한 유대감과 신뢰를 보여주었고, 내가 그들을 찾기 전에 그들이 먼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이번 달엔 어떤 활동을 해볼까요?”, “이건 어때요?”, “크리스마스를 맞아 따뜻한 온정을 모으는 기부 활동을 기획해보면 어떨까요?”, “잔반 ZERO 캠페인에 보다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올해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행복해요. 내년에도 또 참여할 거예요.” 등등 아이들의 들뜨고 행복해하는 반응에 나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 미래를 밝고 행복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은 오늘도 날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차오르는 충만감에 내년을 또다시 기약하고 있다.



고맙고 행복한 세계시민교육 바이러스

류진원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인천 간재울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새로운 세상에 눈뜬 계기

살다 보면 좋아서 하게 되는 일이 있고, 하다 보니 좋아지는 일도 있습니다. 좋아서 시작했는데 할수록 좋아진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제게 세계시민교육은 하다 보니 좋아졌고, 할수록 점점 좋아져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열변을 토하며 다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2015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교육포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하게 된 영어 번역 작업 및 리플릿 제작 등과 같은 부스 운영 지원이 처음에는 '격한' 업무로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포럼 준비 과정에서 하나씩 알게 된 세계시민교육의 의미와 가치는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동시에, 그동안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 아옹다옹 지내며 우물 안 개구리처럼 생활해온 자신을 반성하게 했습니다. 인천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포럼 운영 지원 업무를 하게 된 경험은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기회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개념조차 잡히지 않던 ‘세계시민(global citizen)’에 대한 여러 교수님의 이론을 찾아다니며 배웠고, 각국의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사례를 듣기 위해 관련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및 각종 연수에 주말을 기꺼이 반납하며 참석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뛰는 가슴을 느꼈습니다. 교직 생활 15년에 접어든 해, 배움에 대한 열정이 조금은 둔해지고 시들해지지 않았는지 자책하던 시점에 세계시민교육은 제게 다시 뛰는 심장을 선물해주었습니다.

사람 중한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기

무엇이 나를 그리 설레게 했을까? 요즘도 종종 제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궁극적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초임 발령 시절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교단에 서는 제 자신에게 수시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제가 처한 환경에 따라, 경력이 늘어감에 따라, 때론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흔들리지 않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중한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자’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다짐은 저를 교사로 존재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알게 될수록 그것이 추구하는 ‘상생’의 가치가 제가 교직을 통해 실천하고자 하는 교육 철학과 일맥상통함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깨달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뛰고 설렸습니다. 막연한 마음속 다짐이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이름을 만났을 때 기대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과 마음의 크기만큼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이 미래의 세상을 더욱 멋진 무대로 변화시킬 주역이라는 믿음은 제게 지칠 줄 모르는 배움의 열정을 샘솟게 해주었습니다. 저를 만나는 학생들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만큼 타인도 소중히 여기며, 주변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으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이러한 저의 소망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강력한 교육적 도구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한 활동은?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제도적 노력

2015년 인천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할 당시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제가 모르던 것을 배우고 익혀 학생들과 함께하는 활동으로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능한 많은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토의 활동에 참여했고,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학생들과의 활동 전에는 여러 선생님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 애썼고, 활동 후에는 시행착오를 공유하며 다음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지내다 보니 세계시민교육 관련 자료도 많이 쌓이고, 성공 및 실패의 경험에서 오는 나름의 노하우도 생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열정적인 동료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긴 것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지요.

2016년에는 방향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물론 2015년의 연장선상에서 이루

어진 일들이지만요. 저는 2016년 2월에 열린 중앙선도교사 역량강화 연수를 통해 보다 큰 프레임을 갖고 역할에 임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각 시도 대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많은 의견도 나누었고, 시도별의 다양한 상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6년에 보다 중점을 둔 활동은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었습니다. 우선 유관 기관들과 교류하여 학교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기반을 마련하려 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소와 함께 세계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가졌으며, 다양한 기관 연구팀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연구 델파이 조사 자문을 통해 학교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선생님들과 함께하기

또한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세계시민교육에 첫발을 내딛는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 관심 있는 선생님들께 운영 사례를 소개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한편, 간단한 이론적 배경 강의를 통해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2015년부터 실천한 세계시민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인근 11개교와 함께하는 거점 학교 역할 수행을 수행하는 등, 2016년 한 해는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3

세계시민교육을 할 선생님들께 드리는 팁은?

위한 노력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열정적인 세계시민교육 관련자들을 만나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배려로, 2016년 10월 24~25일 양일간 웨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열린 ‘세계시민교육 실천과 페다 고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세션 스피커로서 ‘세계시민교육 성과 평가’라는 주제로 각국 참여자들과 세계시민교육을 깊이 토의하는 소중한 기회도 가졌습니다.

세계 2015년이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이 싹튼 시간이었다면, 2016년은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며 발로 뛰었던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통하여 제가 얻은 가장 값진 보상은 전국 곳곳에, 아니 세계 곳곳에 있는 세계시민교육의 열정덩어리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새롭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위의 누군가가 세계 “세계시민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질문을 적잖이 받기 때문입니다. 저의 선부른 대답이 누군가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시작조차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까 봐 걱정되기도 해서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을 되뇌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세계시민교육과는 전혀 연관 없는 과목을 가르치니까……’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시고자 하는 선생님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세계시민교육을 시작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롭고 거창한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선생님께서는 이미 훌륭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세계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수업 주제이며 수업 자료입니다

실제로 세계시민교육을 처음 시도하시는 선생님들께선 제게 가끔 수업 자료 및 강의 자료를 요청하십니다. 물론 기꺼이 드리지만, 잊지 않고 꼭 한 가지 팁을 드리지요. 내가 먼저 ‘세계시민’이 되고자 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전공 과목이 무엇이든 간에 온 주변이 모두 수업 주제이며 수업 자료로 보입니다. 저와 친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님들과 종종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전철을 타거나, 운전을 하거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세계시민교육 관련 아이디어가 떠올라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고, 밥을 먹다가도 메모를 한다며, 우리는 모두 ‘GCED’라는 전염병에 걸렸다고 말이죠. 참 고맙고 행복한 바이러스이지요.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면 부담스럽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첫시작을 ‘세계시민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면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는 교사와 제자 사이에 가르침을 주고 배움을 얻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면서 학생들에

게 수많은 감동을 받고 교훈을 얻었으며, 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주하였습니다. 사고가 유연하지 못하고 마음이 개방적이지 못하며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제가 그들에게 배울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것이 세계시민교육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란히 발맞추며 함께 배우기

‘Learn to Live Together’, 말 그대로 우리는 함께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들과 나란히 발맞추며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훨씬 쉽고 즐겁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세계시민의식이라는 스펙트럼으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관점에서 현실 이슈를 분석하고 이면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는 인지적 영역의 세계시민교육도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리라 믿습니다.





교실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정명자 선생님은 제2기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울산 다운중학교 사회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소통과 희망의 교수법’, ‘설명과 질문이 있는 SPEC 학습’, ‘자녀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 등의 주제로 많은 강의를 진행해온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의 목표는 자유의지와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현실의 여러 문제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인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글로벌 마인드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홍익인간 이념과 같은 맥락의 세계시민교육

한 나라의 교육 목표는 각 나라의 국가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이나 핵심 역량으로 표현된다. 한국의 국가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 따라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이에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또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여기에는 홍익인간 이념과 같은 맥락의 세계시민교육도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 사회가 되면

서 이제 나의 문제가 세계 전체의 문제로 대두하고 있기에 교육 과정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교실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지난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여러 각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도 교사로서 나의 가장 큰 화두는 ‘세계시민교육을 어떻게 교실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였다.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습과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에 따라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한 선상에서 어떻게 교실로 끌어들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 총론에 나오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이라는 내용은 교육 공공성의 측면에서 출신이나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한국이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국가 내에서 해결하기 힘든 글로벌 과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진일보한 교육 과정 지침이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시민 의식과 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한 셈이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한 활동은?

세계시민교육의 환경 조성하기

세계시민교육을 성공적으로 실행하려면 교육 정책, 교육제도, 학교 및 교육 과정, 교사의 역량, 학습자의 다양성과 요구 등 광범위한 사회문화적·정치적·경제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시·도 교육청 차원의 의지와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내가 있는 교육청은 전담 부서가 아닌 국제교육팀으로 되어 있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선도교사로서 특별한 활동을 할 상황은 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협조로 2016학년도에는 미흡하지만 약간의 활동을 할 수 있었다.

2016년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로서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협의회를 통해 학생을 위한 교과 수업과 교사를 위한 연수를 계획하였다. 학생들의 교육은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주제 중심 통합학습을 하거나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하여 여러 교과 교사 간의 협업을 통해 주제 중심으로 교과융합 교육과

정을 구성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 교과에 통합할 수도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들을 사회, 환경, 지리, 역사, 도덕, 음악, 미술 등 다양한 교과에 구체적인 학습요소로 반영하거나 기존 과목의 학습요소와 연계하여 수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주요한 지식, 가치, 태도, 기능의 함양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덕과 및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다양한 주제, 학습요소, 성취 기준 등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세계시민교육과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을 재구성하기

나는 사회과 교사로서 정규 수업시간에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을 아우르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먼저 교실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었다. 게시판을 바꾸고 학생들의 수업 산출물을 게시함으로써 평소



에 세계시민의식을 고조시키려 하였다. 또한 내가 과견교사로 나갔던 국가의 자료를 전시하여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곤 했다. 나름대로 다양한 체험과 활동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였다.

교육자들을 위한 연수 실시하기

다음으로는 교사들을 위한 연수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했다. 교사가 교과 수업에 세계시민교육을 녹여내기 위해서는 교사의 의지, 교과 수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능숙도,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한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자들의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무연수와 학습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지역의 선도교사를 대상으로 원격연수와 집합직무 연수를 2차례 실시하였고, 2학기가 되면서 각 학교별 찾아가는 맞춤형 직무 연수를 실시하였다. 물론 세계시민교육 관련 내용의 교사 대상 연수에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학교에 우선 연수를 지원하였다. 교사들 가운데는 아직 세계시민교육이란 용어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분들도 많았는데, 몇 분은 학생들에게 이를 꼭 교육해야겠다고 말했다.



세계시민교육을 할 선생님들께 드리는 팁은?

나와 내 주변에서 시작하기

셋째,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으로 연결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질서와 규칙 등을 인식시키는 한편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척이 아닌 배려를 통해 사회와 연계되도록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함으로써 세계시민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주변에서 시작됨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실에서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글로벌 마인드가 우선이 되어야겠다.

글로벌 차원의 다양한 학습 자료 활용

세계시민교육은 자유의지와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타인의 상황을 공감하며, 현실의 여러 문제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인간상을 목표로 한다. 현장의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과정에서는 학습자들이 그들의 지역 상황과 관련하여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로벌 차원의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에 이미 다양한 학습 자료가 구비되어 있으니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둘째, 교실과 학교, 지역사회 등 지역에서부터 글로벌까지 다양한 맥락에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사회, 도덕, 영어 등의 교과에서 여러 주제와 연계하여 다양한 맥락에서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



어울림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홍윤빈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서울, 2016)로서 정원여자중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용민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서울, 2016)로서 건국대학교 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지리 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혜선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서울, 2016)로서 충무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박재준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서울, 2016)로서 공연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는 이 네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세계시민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매달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이해, 창신동 도시재생 탐방, 문화교류 사례 공유 등 학교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세계시민교육의 영역을 확장하여 진행했습니다. 특히 두 차례의 선도교사 연수(7월, 11월)는 학습자가 직접 연수를 구성해가는 프로슈머 연수로, 지역에서 세계시민성을 찾아 수업에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시 세계시민교육은 유관 기관과의 연계, 지역사회로의 확장을 통해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실천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세계여행자교육을 시작하다

2007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원으로 파나마에 파견되었습니다. 2년 후 한국에 돌아온 저는 동아리 활동 시간을 통해 그 경험들을 6학년 친구들과 나누었습니다. 여행한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중남미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페루의 마추픽추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카리브 해의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마치 해외 경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자랑하듯 늘어놓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세계 명소를 조사해 발표하게 했고, 외국인들 교실로 초대해 활동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학생들은 외국인과 만난다는 것에 마냥 신기해하며 외국을 동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점점 제가 ‘해외 여행 가기’, ‘해외 맛집 탐방하기’ 같은 여행 프로그램 진행자인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험을 바라보는 관점,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시작하다

그렇게 동아리를 운영하다 2010년 유네스코의 지속 가능 발전 연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훈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 비로소 '나의 경험'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파나마 운하를 건설하며 자연을 파괴하던 모습들, 아름다운 자연 주변에는 어김없이 외국인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지어지는 모습들, 보건교육과 의료 시설이 시급한 인디오 마을, 자극적인 신(新)문명과 비참한 현실에서 방황하는 젊은 원주민들, 그리고 저 역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치노(chino)'라 불리며 인종차별을 받았던 경험들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교육 과정을 평화, 인권, 환경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수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공동체의 중요성

교직에는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Edujam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협력, 국제교류, 인권, 평화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에티오피아 지역의 방과 후 학교 사업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이 만든 NGO단체 '세계시민연구소'를 통해 매달 각 분야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경험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교사로서 교직관을 형성해가는 시점에 초·중등 선배교사들의 수업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나의 교직관

세계시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어울림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10년 전 한국국제협력단원으로 낯선 땅, 낯선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지금의 저는 학교 교사로서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어울림의 공동체를 학생들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세계시민교육은 자연스럽게 저의 교직관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의 실천가로서 저의 학급 운영과 수업을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2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면서 주변에 일어난 변화는?

다양성과 상호 이해의 현장을 접하다

제가 세계시민교육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2013년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관으로 진행된 외국 학교와의 교사 교류 프로그램을 경험한 일입니다. 당시 영국의 노팅엄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약 3주간 수업 참관, 학생과 교사들 간의 교류 및 영국의 고교·대학 운영 시스템 등을 직접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국은 역사를 통해 종교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 및 많은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나라이고, 지금도 많은 이민자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문화, 인종, 종교 등에 대한 이해와 타협, 소통이 없으면 학교에서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영국의 학교들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학교에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정신적이나 신

체적으로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보조 교사를 두고 그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경험했던 가장 충격적이고 놀라웠던 장면은 이슬람교를 믿는 교사와 학생이 조용한 교실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다른 문화에 대한 배려와 이해를 당연하게 여길 줄 아는 영국 학교에 녹아 있는 문화상 대주의적 요소였습니다.

선생님들의 이해와 실천의 중요성

저는 우리나라의 학교들이 아직 이러한 다문화 및 글로벌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나 예산 지원 등의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컴퓨터의 하드웨어가 모든 장치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듯,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러한 제도 지원이 무의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인 우리 학생들은 점점 진보되고 심화되는 세계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에 참여한 이후 학생들이 세계시민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학교가 이러한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훌륭하고 능력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어 수행한 활동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는 시대적 과제다

최근 우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내외의 어둡고 암울한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테러, 극우주의에 기반한 타인종에 대한 혐오와 폭력,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이기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와 권력에 대한 탐욕을 앞세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가득 찬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는 이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인성교육, 다문화 교육, 국제이해교육, 지구촌 교육 등의 가치를 모두 아우를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교육들의 실천적 영역까지도 포함하는 교육의 가장 핵심적 이슈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이슈

대학 진학, 학연, 지연, 성적과 능력 및 성과 위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우리 사회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2위 정도의 부유한 나라가 되었지만, 빈부격차를 비롯한 양극화 현상과 환경오염, 각종 부정과 부패, 민주적 시스템의 결여 등으로 행복지수는 그에 비해 매우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학업과 성적 우선주의에 기반한 교육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서 세계시민교육은 우리 공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장래 목표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 접목하기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되고자 하는 장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목표가 없는 학생들도 그것을 탐색하고 찾도록 도울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래 희망을 학생들이 갖게 된다면, 각자의 목표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접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 학생 동아리를 구성했고, 연극, 영화(UCC), 사진, 음악 등의 분야에서 능력을 갖고 있는 동아리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이들이 서로의 재능을 융합하여 콘텐츠 등을 만드는 창작 활동을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접목시켜 의미 있는 여러 결과물을 만들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신

4

이 좋아하고 장래에 하고 싶은 역할들을 매개로 하여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접목시켰던 만큼 모든 학생이 열정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배려와 소통, 나눔, 협력 등 세계시민교육이 포함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통해 표현한 결과 많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큰 귀감과 울림이 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학생의 열정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사에게 가치 중심으로 다가서기

학교는 매년 바뀝니다. 여러 가지 중점 사업과 특색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교육 과정도 바뀌고 그에 따른 수업 방법도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교가 잘 변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교만큼 그해 트렌드에 맞추어 교육 과정을 짜고 학생들을 만나고 업무를 해야 하는 곳도 드문 것 같습니다.

지난 10여년을 돌이켜보면 전 과목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강조하던 해도 있었고, 독서나 논술의 시대도 있었으며, 애국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꿈과 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시민교육도 학교 현장에 공식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가치들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피로감을 호소합

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교육이라는 접시에 너무나 많은 중점 과제와 특색 사업을 ‘업무의 이름으로’ 올려놓고 그 틀에 맞추어 학생들을 만나라는 요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녹아들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의 피로감을 줄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공감대와 실현을 위해서는 업무보다 가치 중심으로 다가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의 가치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지원하기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협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너무도 바쁜 현장 교사들의 열정만으로 세계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녹아들기를 바란다면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 우선 세계시민성 함양이 우리 시대에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서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제안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근본적으로는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세계시민교육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한 학교 관리자 세미나 혹은 교사연구회 지원 등의 폭도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교육청의 모든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교사가 세계시민교육을 또 하나의 업무로 바라보지

않고 교사 자신이 일단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고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지를 고민해보도록 하는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홍보 자료나 연수 프로그램도 제작되어야 하고, 세계시민적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수업 연구 대회나 자료집 등의 개발에도 예산이 배부되어야 할 것입니다.(예산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교육공동체의 공감대 형성하기

학교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이 정규 교육과정이나 학교 행사에 들어가되 우선적으로 교육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지금도 하는 일이 많은데 이걸 또 해야 하는가?”라고 느끼게 되면 그해 그 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힘들어집니다.

세계시민성 함양의 경우 지식적 측면에서 문화 다양성, 환경, 인권 등을 다루어야 할 부분들도 있지만 수업의 방법적 측면, 즉 교사 자신의 가치, 나 자신이 학생들과 만나는 방법에서도 분명히 찾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수업 방법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후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전문 학습 공동체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쌓이면 자유학기제 혹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하여 세계시민교육의 콘텐츠를 소개하고 이를 실천과 연결할 수 있는 동아리나 행사와 연계하고, 더 나아가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즉, 학교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세계시민교육을 실현하려면, 교사의 피로도

5

세계시민교육을 할 선생님들께 드리는 팁은?

를 증가시키는 업무적 접근보다는 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각급 학교 내에서의 공감대 형성, 수업 방법으로서의 접근, 자기 교과에서
세계시민성 찾아보기를 통한 저변 확대와 다양한 학교 자체 프로그램을 이
용한 세계시민교육에 ‘힘 실어주기’가 필요합니다.

글로벌 환경에서 살아가는 능력 키워주기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신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것의 개념이
매우 궁금하실 것입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서 다
른 동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로부터도 질문을 받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말 그대로 세계의 시민과 어울리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가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
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어렵게 표현하면 국제 정세나 세계의 주요 이슈들
을 이해하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국제
이해교육이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이 바로 인성교육

저는 세계시민교육의 가치를 표현하는 단어들은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

려, 소통, 나눔,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장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가치들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이러한 가치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상실되어 있고, 이것을 위해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이라는 용어으로써 그것들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이 바로 인성교육 그 자체 아닐까요.

세계시민교육을 뒷받침하는 활동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내재적 가치들을 담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입니다. 활동적인 측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진정한 세계시민교육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영어, 사회뿐만 아니라 수학, 국어, 음악, 미술 등 모든 교과 의 내용과 관련 지을 수 있습니다. 교과의 각 단원에서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가치를 접목하여 교과 수업시간에 세계시민교육의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 각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일 것입니다.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 열정이라는 영혼을 불어넣는 선생님들은 자신의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들을 찾아내어 그것을 수업에 적용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선생님들로부터 저 또한 많은 가르침과 수업 방법들을 배웠고, 실천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배움의 진정한 목적을 전달하며, 그 과정에서 또한 학생들을 통해서 큰 깨달음과 보람을 얻게

됩니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시민교육의 열정에 동참하시어 여러 훌륭한 선생님 및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유관 기관의 열정 넘치는 많은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는 선생님이 더욱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세계시민교육

정영남 선생님은 2기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로서 경북 김천여자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영남 선생님은 특히 학생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동아리 활동과 같은 작지만 흥미를 일깨워주는 활동을 통해서 일상의 사소한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런 변화들이 모여 아이들을 세계시민으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정영남 선생님이 동아리를 통해 만들어낸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가볍게 생각했던 세계시민교육

2016년 2월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로서 연수를 받기 전 세계시민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는 세계시민이란 ‘글로벌 시대의 좀 더 교양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다. ‘취업이나 공부를 위해 또는 관광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니 문제가 많겠지. 좀 더 친절하고 교양 있는 태도로 외국인을 대해야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도 좋아질 테니 세계시민교육을 하는가 보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학교생활 문제가 많아지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학교에 돌아가면 그냥 교과 시간에 좀 더 하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아’, ‘환경오염’, ‘인권’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연수를 받고, 이미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동아리 활동 등의 사례 발표를 보면서 나 자신이 참 좁은 세상에 갇혀서 좁은 사고를 하고 살았음을 알게 되었

다. 연수를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세계시민이 되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은 4박 5일 동안의 연수를 제공하고 그 본전을 뽑으려는 듯 내 어깨에 자꾸 책임감을 쌓아갔다. 학교에 돌아가면 중앙 선도교사로서 반드시 세계시민교육을 해야 한다고 세뇌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참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다. ‘교장 선생님! 그냥 가볍게 연수받고 와서 지역 선도교사들에게 전달연수만 해주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받은 사례와는 다른 학교 현실

연수를 받고 돌아와 많은 고민을 했다. 우리 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여서 사례 발표에서 본 것처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사례 발표를 보면 선생님들이 참으로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았다.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학교에서 녹색 환경을 만들기 위해 텃밭을 가꾸기도 하고, 심지어 재래식 화장실을 만들어 사용하는 학교도 있었다. 아, 내게는 너무 힘들고 벅찼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비담임인 내가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일주일에 한 학년의 각 반에 두 시간씩의 수업 시간과 상담이 필요한 학생과의 상담 시간뿐인데.’ 역시 동아리 활동을 선택해야 했다.

작게나마 시작하기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면서 세계시민교육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초등

학교나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생은 어느 정도 개념만 알려줘도 교육이 되지 않을까? 교육이 힘들고 벅차게 되면 하고 싶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한창 입시에 시달리는 학생들도 힘들게 하거나 시간을 너무 빼앗는 활동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니 ‘작은 시작’을 하자고 생각했다. 작지만 그 활동 후 변화한 아이들의 마음이나 행동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큰 것보다는 작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고 그 변화한 마음과 행동을 지속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변화하는 아이들

지난 1년의 마무리를 하는 지금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나의 방향은 옳았다고 생각한다. 일회용품을 주저 없이 쓰던 동아리 아이들이 해양 오염에 희생된 거북이 이야기를 보고는 닭 강정을 같이 먹을 때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쓰는 것 대신 손으로 먹고 씻는 것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외국인 초청 활동을 한 후에는, 우리와 모습이 다른 외국인을 볼 때도 편견이 많이 사라졌으며 같은 지구촌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준다.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한 활동은?

글로벌 이슈 관련 활동과 외국인 초청 활동

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를 도모하기로 하고 글로벌 이슈를 통한 활동만으로 연간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던 중이었다. 마침 도 교육청에서 국제이해교육 동아리 지원 공모와 외국인 초청 교육 지원 공모를 하고 있어서 지원했다.

국제이해교육 동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간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어서 한 번쯤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외국인 초청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에 더욱 흥미를 갖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도 많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은 크게 글로벌 이슈를 통한 활동, 외국인 초청 활동 두 가지로 잡았다. 두 가지 활동은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세계시민성 함양’이라는 큰 목표 아래 각각의 목표도 뚜렷하게 잡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세 영역을 아우를 수 있을 것 같

았다.

먼저 글로벌 이슈를 통한 활동의 목적은 “글로벌 이슈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더욱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세계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한 나의 생각과 행동의 작은 변화”로 하였고, 외국인 초청 활동의 목적은 “상대 국가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 갖기”로 하였다.

글로벌 이슈 관련 활동의 진행 과정

글로벌 이슈를 통한 활동은 3월부터 총 5회 진행했는데, 각각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글로벌 이슈와 관련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 후 팀별로 모여서 이 이슈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토론·토의한다. 이후 작은 것이라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며 가끔은 캠페인 활동 등의 연계 활동을 한다. 1회와 2회의 활동은 지도교사의 지도 아래 활동하였고, 3회부터는 주제와 자료만 지도교사가 제시하고 동아리 회장의 지휘 아래 자율적으로 활동하였다.

외국인 초청 활동의 진행 과정

외국인 초청 활동은 한 학기에 3시간, 연간 6시간을 했다. 1학기에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유학생, 2학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유학생을 초청하여

3

동아리 활동 후 일어난 의미 있는 변화는?

시행했다.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이 사전에 학생들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사항을 바탕으로 기획하여 진행하였다. 외국인 초청 활동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활동 전에 학생들이 상대 국가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화의 특징을 조사한 다음, 궁금한 점과 활동시간에 하고 싶은 내용 등을 쓴 활동계획서를 외국인 유학생에게 이메일로 보낸다. 이후 외국인 유학생을 초청하여 신나게 활동한다. 그다음에는 느낀 점이나 배운 점을 동아리 부원들과 공유하고 소감문을 작성한다.

활동계획서와 활동 후의 느낀 점, 배운 점을 적은 소감문 쓰기 활동지는 개인의 클리어 파일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특히 활동계획서는 외국인 초청 활동 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나 외국인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 등을 적어놓으므로 활동하는 도중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작은 변화라도 좋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연수를 받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분야여서 흥미가 생겼고, 세계시민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은 욕심도 생겼다. 결정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인 '학교폭력 예방'에도 특효약이 될 것 같았다. 마침 교장 선생님께서 경험이 있어서 활동 계획을 세울 때 많이 도와주셨다. 하지만 계획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일주일에 한 번의 활동, 그것도 학교의 여건상 한 번씩 빠지기도 하여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할 텐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작은 변화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였다.

깨끗한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깨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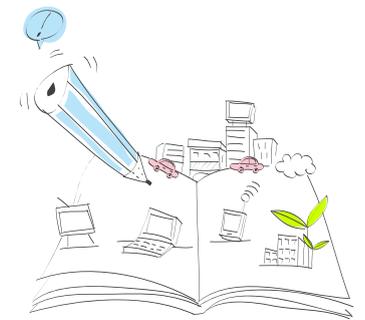
시간이 바쁘게 지난 후 6월 셋째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지역 선도교사들에게 전달연수를 하게 되어 ‘동아리 활동의 실제’를 주제로 발표하게 되었다. 그때 발표 자료를 모으기 위해 아이들의 과일을 모아서 활동지를 읽어보았다. 그리고 ‘아, 이것이구나. 이렇게만 해도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은 평소에 누리고 있는 깨끗한 물 한 잔이 어떤 이에겐 간절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을 나누고 싶다고 했다. 또한 인간이 오염시키는 자연환경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해 마음 아파하며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로 했으며, 글로벌 이슈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초청 활동을 통해서도 세상에는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존재하며 그 문화와 사람들 모두가 존중받아야 함을 배웠고,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을 많이 버리게 되었다고 했다. 가난하고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세계시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 외에도 변화에 대한 많은 기술들이 있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

두 가지 활동의 연계 활동으로 아동학대를 널리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한 손가락(한 손톱)에 봉숭아 물들이기’, 세계 식량의 날을 기념하는 ‘NO

HUNGER’ 캠페인, ‘잔반 없애기’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였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작은 변화라도 좋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동아리 활동이었지만,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나에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다.

두 활동을 통하여 세계시민교육은 함께 살아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며, 학생들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통하여 더욱 훌륭한 세계시민으로서 능력을 갖출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의외의 효과를 보았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학생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면을 본다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동아리 학생들이 사전에 보낸 메일을 통하여, 또한 자신들을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를 통하여, 자기 나라에 관해 학생들이 많은 것을 검색하고 공부했다는 사실에 감동했다고 마워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생긴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다.





1기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 특별 기고

수원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는 법

이원향 선생님은 현재 경기 수원 동신초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으며, 2015년에 1기 세계시민교육 중앙 선도교사로 활동하고 2016년에는 경기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2년의 선도교사 경험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셨기에 다른 2기 중앙 선도교사 실천 사례와 함께 묶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는 세계시민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선생님이 준비한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위한 팁은 무엇인지 함께 읽어 보도록 합시다.

나에게 세계시민교육이란?

인간의 삶에 대한 교육

저에게 세계시민교육의 주제와 범위는 사회생활 전반의 문제와 연관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와 교과목의 주제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교육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계시민교육은 인간의 삶에 대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

처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할 때 구상한 것은 제3국에 대한 지원과 봉사였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다른 상황에 처한 여러 나라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어려움을 아파하고 공감하며, 그들을 대하는 자세와 도움 방법을 고민하도록 해보고 싶었습니다. 즉, 아이들에게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주고, 직접 성금을 모아 돕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면서 그 나라들이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보니, 문제의 원인과 환경이 우리와 유사하거나 관련 있다고 생

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역사, 환경, 지리, 인종, 종교 등과 비교하며 생각하게 되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 고민하였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사인 저 또한 세계시민교육 수업들을 하면서, 연민을 통한 ‘기부’에서 ‘이해’와 ‘행동’으로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교과와 접목한 실천

이후 수업을 국어, 사회,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등 여러 교과와 접목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이해하는 한편, 환경 등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실천하기 위해 생각해보는 수업으로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과 함께해야 하므로 다른 반 친구들, 선배, 후배들에게 알리기 위한 실천 대상의 범위 확대를 위한 과정이 생겨났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며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다른 문제를 또 생각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 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접목함에 따라 학생들이 주변을 돌아보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그 과정은 아이들끼리, 또는 교사와 아이들끼리 많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여러 교과를 지도하는 것은 세계시민교육에 큰

장점이 됩니다. 하나의 주제를 여러 교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사회 교과에서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을 고민할 때 해결책을 국어과 토의 또는 토론의 방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모은 의견을 미술 시간에 그림, 포스터, 영상 등으로 만들어 환경 게시판을 만들거나 환경 관련 공모전에 응모하고, 음악 시간에 배운 가락에 가사를 붙여 캠페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장면을 모아 영상으로 제작하여 온라인에 공유하면 여러 사람과 함께 문제 해결에 대한 실천 의지를 기를 수도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주제 하나로 여러 교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하고, 아이들끼리 의견을 나누며 협력하는 단계를 밟으니 서로 가까워지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교사를, 교사는 아이들을 아끼고 믿는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지난 2년간 5학년 담임을 중임하며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 같은 주제로 앞의 과정을 반복하였지만, 과정과 방법에 차이는 있어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주제이고, 누구나 느끼는 이해와 실천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또한 교육 과정에서 함께 노력하는 사람들과 끈끈한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연결 고리가 되었습니다.

2 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동하려는 의지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주제와 다양한 교육 활동, 교육 장소와 폭의 확대 등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대상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과 그들에 대한 이해가 최선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세계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생각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들과 저는 실천에 대한 의지와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르치기보다는 체험하게 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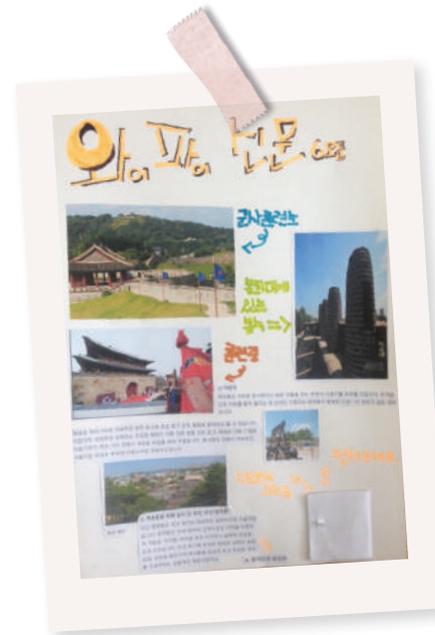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론적 배경이나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은 아직 비효율적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섞어서 전달해도, 들려주는 수업에 만족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다문화 친구들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차별 금지에 관한 주제 수업을 할 때도 비슷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기후와 환경, 복장, 음식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방식의 수업보다는 전통 복장을 친과 종이로 꾸며 콘테스트 발표하기, 여러 나라 음식 만들기 체험, 나라별 언어와 몸짓으로 인사나누기, 그 나라 사람이 되어 자기 나라 소개하기 등의 활동이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 후 아이들의 감상문이나 일기를 보니 흥미와 함께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더욱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고 체험하며 소개하고 싶다는 글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몸으로 체험한 문화의 다양성은 오래 기억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기도 합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스스로 경험하고 마음속 깊이 느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원에서 실천한 활동들

아이들이 처음으로 직접 실천하려면 ‘행동 의지의 마중물’도 필요합니다. 펄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넣는 마중물처럼, 행동을 실천하려면 첫 단추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역인 수원은 조선 22대 왕이었던 정조

대왕이 아버지 세도세자의 능을 가까이 모시고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 진찬연을 벌였던 곳입니다. 수원은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인 화성과 복원된 화성행궁을 품고 있는 효의 고장입니다. 올해인 2016년이 '수원 화성 방문의 해'로 지정되기 전부터 매년 학교와 지역에서 '효원의 열'이라는 교육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들은 역사적 배경과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올해 아이들과 함께 자부심을 갖고 고장의 자랑거리를 소개하는 활동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모둠별로 화성행궁을 방문하여 주변 인물들과 인터뷰하기, 행궁의 구석구석을 사진으로 찍어 홍보 영상 제작하기, 화성을 소개하는 신문을 제작하여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정조와 아버지 사도세자,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 관한 일화를 촌극으로 꾸며 발표하기 등의 수업을 했습니다. 아이들끼리 인터뷰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시간을 정하고 약속하여 행궁을 방문하고, 일화들을 조사하여 촌극으로 꾸미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교사인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도움에 따라 여러 활동을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비록 지치고 힘들었지만 동영상 제작하여 온라인에 소개하고 학교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방문 횟수를 체크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고장에 관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궁금해하는 모습을 본 저는 그 시간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의 의지와 함께 교사가 의지를 실천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이 세계시민교육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시민교육을 할 선생님들께 드리는 팁은?

생활 속에서 교육의 주제를 찾고 실천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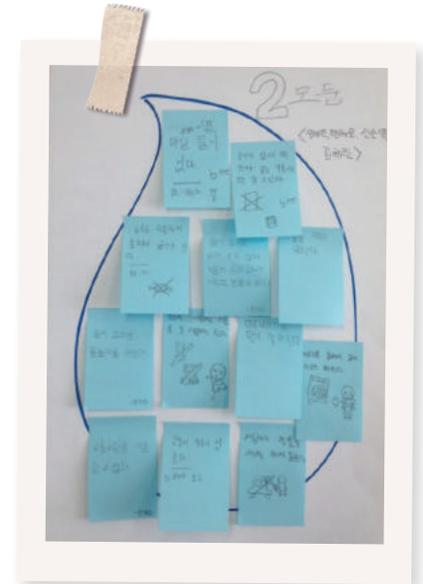
세계시민교육의 주제는 생활하는 주변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통해 그 주제를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공유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환경 등의 사회 문제, 달력에 적혀 있는 각종 기념일, 학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 등이 세계시민교육의 좋은 수업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 친구들을 돕는 방법들

저는 이렇게 실천하였습니다. 첫째,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회 문제를 수업에 적용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유난히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놓인 북극곰에게 미안해하면서

도 에어컨 있는 곳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름 방학이 끝난 직후 우리는 기나긴 가뭄과 더위 때문에 식수가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 친구들의 고통을 함께 생각하는 수업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절실히 이해하기 위해 아직 더운 9월에 하루 동안 물마시지 않기 체험을 하며 물 부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



인지 간접 경험해봤습니다. 아이들은 물 부족 문제에 대한 이해와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학급 회의를 통해 아프리카 친구들을 위한 식수위생사업 지원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먼저 물 부족 국가 분포 지도를 그리고, 물의 중요성과 물 부족 국가가 겪는 어려움을 그림과 표로 표현하여 주변 친구들과 부모님, 선생님에게 알리기 위해 캠페인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벼룩시장에서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하기 위해, 학급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은학년 친구들과부터 벼룩시장에서 판매할 물건을 모았습니다. 동네에서 매달 넷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차 없는 거리의 벼룩시장에서 시간대별로 조를 짜 함께 물건을 팔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수익금 전액을 기부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아프리카의 물 부족 국가들을 소개하고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부함을 만들

고 돌아다니며 성금을 모금했고, 물 부족 국가 친구들의 어려움을 주저 없이 알렸습니다. 성인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겠다는 결의에 찬 아이들의 마음이 전해진 듯 벼룩시장은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을 격려하며 음료수와 간식을 건네는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학급에서 아이들이 나누었던 마음이 지역 주민을 포함한 여러 사람에게 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벼룩시장과 성금 모금을 마친 후, 팔지 못한 물건들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했고, 수익금과 성금 전액은 월드비전 식수위생사업에 학급 이름으로 기부하였습니다. 물 부족 국가의 어려움에 관해 이해하는 수업으로부터 기부 영수증과 확인서가 아이들 손에 도착하기까지 한 달 반의 시간이 걸렸지만, 아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활동에 적극 임했습니다. 이후 지역 사정 때문에 차 없는 거리 행사가 중단되어 벼룩시장이나 지역 주민 대상 캠페인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무척 아쉬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새로운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이야기를 찾아 함께 나누기

둘째, 지속 가능한 주제의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 교육, 통일 교육, 독도 교육, 생태 환경 교육 등 연간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여 운영합니다. 그런데 행사 내용을 들여다보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을 격려하기보다는 그림이나 포스터, 표어 그리기, 글

짓기 대회, 만들기 활동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에서 행사를 통한 교육의 효과에 회의를 느끼고 교실에서 실천하는 작은 행사로 축소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수업의 내용과 주제를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관련한 뉴스나 이야기를 찾아 함께 나누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실천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달력에 표기된 각종 기념일은 여러 주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세계아동노동 반대의 날, 제헌절, 농업인의 날 등을 아이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접근하는 방법을 실천해봤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주제 일기를 쓰거나, 모두 둘러 앉아 돌아가며 생각을 나누면서 조금씩 생각의 폭을 넓히고 의견 차이를 좁혀가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사 및 학부모들과 소통하기

셋째, 동료와 다른 학생, 학부모에게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 개인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부모님, 다른 교사가 모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은 씨앗으로서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학급이나 동아리의 일들을 학급 밴드 등 SNS를 통해 사진과 글로 소개하고, 한 달간 아이들과 함께한 내용을 정리하고 아이들의 글을 매월 말에 소식지를 통해 가정에 전달하는 한편 학부모들과 소통할 창구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활동 자료와 사진을 동료 교사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물론 지역 단체와 함께한 활동이 신문이나 뉴스에 소개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학급 아이들을 데리고 토요일에 벼룩시장이나 기부 활동을 할 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일들을 자세히 나누고 동참을 권유하였을 때 모두들 좋아하고 적극 참여해주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 당장 행동을 함께하기는 어렵더라도 마음이 조금씩 전해지고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선생님들의 이야기
2016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실천 사례집

©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2016

ISBN 978-89-97142-65-1 03060

2016년 12월 9일 발행

집필에 참여하신 분들

이진희, 고아라, 박성기, 서지혜, 이원향, 최제오, 박지윤, 남윤정
박지현, 류진원, 정명자, 박재준, 정혜선, 홍윤빈, 정용민, 정영남

기획 및 편집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교육연수실

펴낸 곳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120 (구로동)

전화 02-774-3933

팩스 02-774-3958

디자인 및 인쇄 도서출판 컨텐츠하우스

본 책자에서 표현된 아이디어 및 견해는 저자의 것으로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